

2021년도 신입전공의 입문교육 Q&A

* 교육일시: 2021.3.13(토) / online

* 대상: 2021년도 전공의 1년차 및 2년차

Q1. k.u.b와 simple abdomen 차이가 궁금합니다.

A1.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Q2.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CT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T urography, enhance APCT, Dynamic APCT 등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여러 복부 CT 중 어떤 CT를 찍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A2. 혈뇨가 주소이면 CT urography, 수술 후 혈뇨는 CT angio, 종양 수술 후 단순히 FU하는 경우는 APCT를 하면 됩니다.

Q3. 외래에서 rigid cystoscopy 시행 시 예방적 항생제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A3. 외래에서 시행하는 rigid cystoscopy는 대부분 clean wound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risk factor가 있을 경우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dirty urine 상황 (장기간 foley cath 유지, CIC 환자)에서 cystoscopy를 보는 경우도 urinary tract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clean wound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Q4. 매독 환자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 콘돔 없이 성관계해도 전염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4. 강의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치료 후에는 감염력이 없어 콘돔 없이도 성관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혼동이 올 수 있는 경우는 후기 매독의 경우 VDRL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serofast가 유지됩니다. 이럴 경우 항생제 치료 등으로 음성으로 전환이 되지 않아, 치료 실패와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염력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에 대하여 확립된 것이 없어, 전염력은 낮지만 콘돔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Q5. foley cath나 cystostomy를 장기간 하고 있을 경우 pyuria나 bacteriuria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서 HoLEP이나 LRP등을 시행할 때 항생제 사용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5. 일단, HoLEP과 LRP는 urine이 더러울 경우 contaminated wound가 되어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 cystoscopy의 경우 clean wound이기 때문에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필요 없습니다. 즉, clean wound의 경우 urine이 더럽다고 하더라도 risk factor가 없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예방적 항생제는 필요 없습니다. 추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 기간 외에 추가로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항생제 사용

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병원 평가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병원 감염관리실 등과 상의하여 각 병원의 규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Q6. 동의서를 받을 때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따로 제지할 수가 없어 그냥 허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6. 환자분들이 녹음을 하실 때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녹음을 하실 경우 의료진에게 이야기 하고 녹음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의료진들도 함께 녹음을 해 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끝.